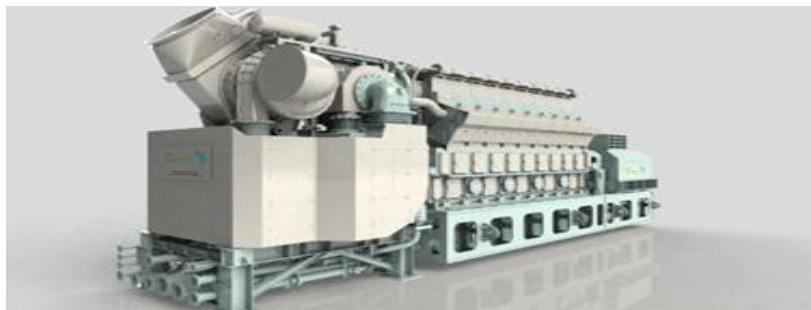


[일본 ●]

● 가와사키중공업, 세계 최초로 8MW 규모 수소 30% 혼소 대형 가스엔진 상용화 (Kawasaki, '25.9.30)

- 가와사키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수소 30% 혼소가 가능한 8MW 규모 대형 가스엔진 시스템*을 상용 출시한다고 발표함
- * 가와사키 그린가스엔진: 2011년 이후 240대 이상 판매된 천연가스 기반 고효율 엔진 기술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, 체적 기준 최대 30%까지 수소를 천연가스·도시가스와 혼소할 수 있는 수소전환형 모델임
- 해당 장비는 2024년 10월부터 고베 공장에서 실증 운전을 진행했으며, 수소 공급 안정성,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검증한 뒤 2025년 9월 실증을 완료함
- 기존 발전설비 및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수소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, 분산형 전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기술로 평가됨
- 주요 특징은 ▲고효율·저질소산화물(NOx) 배출 설계, ▲운전 중 혼소율 조정기능, ▲수소 누설 감지기·질소 퍼지 시스템 등 안전 설비, ▲기존 엔진의 개조 적용 가능성 등으로 요약됨
- 가와사키는 향후 생산·운송·저장·활용 전주기를 아우르는 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며,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


출처: 가와사키중공업

[미국

- 미국 Plug Power, 워런트 유도 계약 통해 3억7천만 달러 조달(HydrogenInsight, '25.10.8)
 - 미국 PEM 수전해 및 연료전지 제조업체 플러그파워(Plug Power)는 기존 투자자들과 워런트 유도 계약*을 체결해 약 3억7천만 달러의 현금을 조달했다고 발표함
 - * 워런트 유도 계약: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매수권(워런트)을 조기에 행사하도록 유도해 회사가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전략
 - 이번 계약에는 기존 워런트 행사와 연계해 동일 수량의 신규 워런트를 주당 7.75달러에 발행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며, 해당 워런트가 전액 현금으로 행사될 경우 최대 14억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음
 - 신규 워런트의 만기는 2028년 3월 20일로 설정되었으며, 보통주 발행이 제한될 경우 2026년 2월 28일 이후 현금 결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됨
- cf) 플러그파워는 최근 CEO 앤디 마시의 사임과 함께,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를 후임 CEO로 선임할 계획을 공개하며 경영 안정화에 나선 상황임
 - 회사는 2025년 말 손익분기점(BEP)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최근 미국 에너지부(DOE)가 3개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집행을 중단하면서 단기 유동성과 재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
 - 시장에서는 이번 자금 조달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, 연속적인 외부 자금 의존과 정책 자금 집행 지연이 중장기 사업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됨